논문 16

미래직업이해 수준에 대한 학교 진로교육의 영향

김 경 식[1] · 이 현 철[2]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의 전국규모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의 주요 영역인 미래직업이해 수준의 종단적인 변화를 추정하고 그러한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별히 학교 진로교육의 효과를 탐색하여 향후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를 기능적으로 개발하고 진로교육 계획 수립의 실증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 LGM)을 적용하였으며, 무변화, 선형변화, 이차곡선변화를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04-2009년의 경우 이차곡선 변화모형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초기치와 변화율 상관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또한 이차곡선 변화모형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 변수로는 개인수준의 자기효능감, 학교수준의 학업성취와 학교 진로교육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진 학교 진로교육의 경우 초기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었으나 변화율과 이차곡선에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I. 서론

최근 한국 사회의 직업세계 변화는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속도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개인의 평생에 걸친 진로개발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다양한 수준에서의 내실 있는 진로교육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회 초년생들과 건강한 사회 구성원 양성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더욱 더 강조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진로교육은 다양한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의 삶에 있어 필요한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적성·흥미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반적으로 초/중/고/대학생을 초점을 맞춰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이상준, 2011).

청소년의 고민을 다룬 연구들은 청소년 자신의 진로문제가 중요한 고민 사항 중의 하나임을 밝히고 있다. 성적문제 또한 진로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진로문제가 어쩌면 청소년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 하겠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는 높은 교육열과 학력사회의 한

1) 경북대학교 교수
2) 경북대학교 연구원

단면으로 고학력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학력자의 구직난과 제조업의 인력난을 겪고 있다. 좋은 대학 좋은 학과만을 찾는 우리의 교육현장은 학생들의 적성보다는 수능성적과 내신성적에 따라 대학과 전공을 여전히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부학생은 적성에 맞지 않는 공부 때문에 힘겨워하거나 방황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진로지도교육의 필요성이 점증하면서 국가 차원에서도 그 해결책을 찾고 있다.

최근 진로교육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관심과 적극적인 움직임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월 11일 발표한 '2012년 진로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에서 엿볼 수 있다. 먼저 정부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과 함께 이과·문과 계열 선택을 해야 하므로 중학교 단계의 진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중학생은 재학 중 1회 이상 직업체험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올해 중 900명의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중학교에 배치되고 내년에 중학교에 배치할 1500명의 진로교사도 올 8월경 선발한다는 골자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또한 각 시도교육청에 기업과 학교를 연결하는 매칭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업체험 매뉴얼도 개발해 보급하기로도 하였으며, 학교의 진로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각 학교에 진로상담을 위한 전용 공간인 '진로활동실(Career Zone)'이 전국적으로 1000여개 구축한다고 발표하였다. 해당 학생들은 이곳에서 연 2회 이상 진로적성검사와 심층적인 진로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디지털타임즈, 2012.01.11).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종합직업전망서인 '미래의 직업세계'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해 배포하고 학교에서 진로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초중고 디지털 진로교과서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교육청별로 폐교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한 진로체험시설을 구축하고 방학과 주말을 이용해 진로캠프를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 시켰으며,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올해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각각 205억원, 478억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다(머니투데이, 2012.01.11). 이처럼 적극적인 전략을 구축하여 진로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청소년들과 관련된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며, 그들의 전 생애의 기능적인 직업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지원책이 교육 체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진로교육의 중요성은 빈번히 언급되고 있으며 다양한 수준의 정책들이 시도되고는 있지만, 현재의 학교 내 진로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러한 진로교육 활동들이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에 대하여 치밀한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임언,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의 전국규모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진로성숙도[3]의 주요한 영역으로서 직업이해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 특별히 학교 진로교육의 효과를 탐색하여 향후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를 기능적으로 개발시키고, 진로교육 계획 수립의 실증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3) 진로성숙이란 자기이해와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지산의 진로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선택하며 결정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의 정도이다. 따라서 진로성숙은 크게 태도요인과 능력요인으로 구성되며 태도요인은 계획성, 독립성, 결정성, 능력영역에는 직업선택능력, 의사결정능력, 직업세계이해능력을 포함한다(한국교육개발원, 1992)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의 하위 영역 중 직업세계이해와 인식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대한 학교 진로교육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Ⅱ. 선행연구 탐색

진로는 단순히 진학이나 취업, 직업의 선택만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라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발달과 그 내용의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박완성, 2006; 박재홍・유연숙, 2006). 이러한 진로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진로 탐색 및 선택은 개인 내적인 자아실현의 본질적인 혹은 협의적인 의미 이외에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동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요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보다 광의적인 측면을 시사한다(김경식・이현철, 2007).

이러한 의미를 지닌 진로의 개념을 고려한다면 꿈을 이루게 도와주는 교육이라 할 수 있는 진로교육은 청소년들에게 더욱 필요하다 하겠다. 진로지도(교육)의 사전적 의미는 의미 있는 직업 또는 직업가치를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다. 진로지도는 취업지도나 직업안전에 초점을 둔 직업교육만이 아니라 상급학교의 진학지도 또한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이상준(2011)도 다양한 진로교육의 의미들을 고려하여 개인이 올바른 직업선택과 사회생활에서 나타나나는 다양한 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공된 또는 주어진 정보를 찾아서 자신이 직접 합리적이고 주도적으로 풀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으로 보고 있다.

올바른 진로지도가 되려면 취학 전에 시작되어 평생 동안 전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상호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일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체계적으로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학교에서 전개되는 진로교육은 “학생들의 행복한 개인으로서 생산적인 사회성원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나아가 총체적인 자아실현을 위해 자신의 잠재적 가능성을 토대로 적성과 능력에 맞는 그리고 흥미 있는 일의 분야를 선택하고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한국교육개발원, 1990).

진로지도가 자아의 이해,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3대 요소로 하여(강현랑, 2000),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그 진로에 대한 준비를 하며, 적절한 시기에 그 직업을 선택하고 선택한 직업에 잘 적응하며,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김정길, 1993)이므로, 청소년들에게 자신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일의 세계에 대한 안목을 넓히며, 진로계획에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여 활용할 줄 알게 함으로써 잠정적인 장래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하기봉, 2001).

학생의 진로는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표 1> 참조).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어렵게 진학한 대학생들이 전공이 맞지 않아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진로를 생각하기에 앞서 부모들이 미리 정해놓은 진로를 마지못해 따라가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학교교육에서 제대로 된 진로교육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어쩌면 2012년 1월 11일 발표된 진로교육시행계획에서 학교 내 진로교육의 다양한 활동들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표 1〉 진로 결정 요인

영 역		요 인
개 인	특성	연령, 성, 능력, 적성, 지능, 흥미, 자아개념, 진로결정 가기효능감, 신체적 조건, 학문적 욕구, 진로관, 가치관 등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 일탈 경험, 동아리활동
가 정	구조적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직업, 경제력, 종교, 문화시설, 형제수, SES, 결손가정여부, 가정학습 분위기, 가족내 서열, 결혼계획 등
	사회심리적	부모와 본인의 교육포부, 부모의 관심과 격려, 중요한 타자의 영향, 가정환경에 대한 만족도, 형제관계 등
학 교	물리적, 구조적	학교시설, 진로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전공), 학년, 학교계열
	사회심리적	교우관계,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교사와의 친밀도, 학교분위기(학교풍토, 학급풍토) 등
	성취	학업성취(인지적, 정의적)
직 업		직업세계의 변천, 고용시장, 봉급수준, 직장환경, 보너스, 발전가능성, 휴가, 직장내의 인간관계, 직업명성 등

진로교육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준다(Maddy-Bernstein, 2000). 국내연구에서도 진로교육은 진로의식, 진로준비행동,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등과 같이 진로성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임언, 2005; 김희수, 2007; 이상준, 2011; 김경진, 2011).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은 '학교효과 연구'의 관점에서도 이해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다양한 영향요인들 가운데 학교 내 진로교육의 영향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는 임언(2005)이 지적하고 있듯이 이와 관련된 논의가 충분하지 못한 이유와 본 연구자들의 후속 연구로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실제 본 연구자들의 경우 이미 청소년들의 진로결정과 관련된 종단 연구를 KEEP 자료를 통해 수행하였으나, 해당 내용의 경우 응답자들의 전 생애를 반영하기에 당시로서 누적 조사 시기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학교 내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 또한 충분히 가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여 분석하는 것은 주제에 대한 심층성과 후속연구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Ⅲ. 분석 대상 및 변수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의 미래직업이해와 관련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으며, 연구의 목적을 위해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자료를 분석하였다. KEEP의 경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04년도부터 전국 중학교 3학년,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각각 2,000명과 학교 행정가 및 교사 그리

고 가구 등을 종단적으로 조사한 대표적인 한국의 종단 자료이다. 본 연구대상은 2004년(중3)에서 2009년 6차년도까지 조사된 자들이다.[4)]

〈표 2〉 연구대상

변인 유목		빈도(명)	비율(%)	계(명, %)
성별	남자	996	49.8	2,000(100)
	여자	1004	50.2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172	8.9	1,933(100)
	101-200만원	531	27.5	
	201-300만원	585	30.3	
	301-400만원	312	16.1	
	401-500만원	169	8.7	
	500만원 이상	164	8.5	

2.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들의 2004-2009년 직업이해 수준을 종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해당 변수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추정하고, 그러한 변화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관련성을 분석해볼 수 있는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 LGM)을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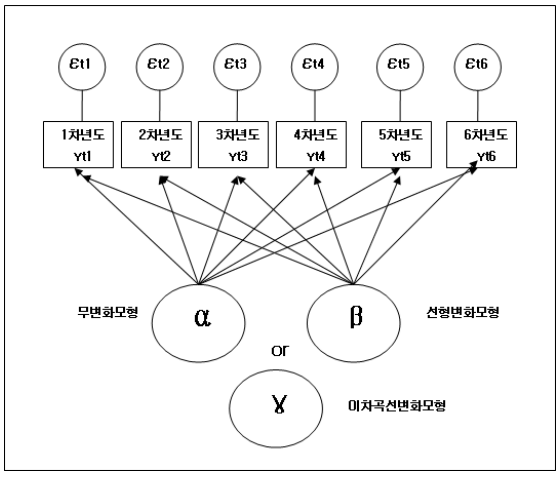
잠재성장모형의 경우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에 기초하여 반복 측정된 종단적 자료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종단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 가장 최신의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다(Bollen & Curran, 2006). 좀 더 구체적으로 잠재성장모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기존의 변화분석 방법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비현실적인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고 자료에 대해 가설화된 성장 모형의 적합성 평가가 가능하며, 변수들의 평균, 분산, 공분산 정보를 이용함으로 기존의 방법보다 더욱 안정적인 모집단의 추정치들을 획득할 수 있고, 선형과 비선형 등의 변화궤적의 형태를 확인할 수도 있다. 또한 변화 체계에 대한 예측변수들의 효과 검증과 집단 간의 변화율 차이 검증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어 변화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한 강력한 설명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다(권영옥, 2001; 이기봉・박일혁, 2001; 이기봉, 2003).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잠재성장모형의 기본적인 변화 모형의 수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중3 코호트의 경우 2차년도 부터 고교 진학이 이루어졌으며, 2005년 이후 자료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생만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Y_t = \alpha + \lambda_t\beta + \varepsilon_t$$
1차년도: $Y_{t1} = \alpha + \lambda_{t0}\beta + \varepsilon_{t1}$
2차년도: $Y_{t2} = \alpha + \lambda_{t1}\beta + \varepsilon_{t2}$
3차년도: $Y_{t3} = \alpha + \lambda_{t2}\beta + \varepsilon_{t3}$
4차년도: $Y_{t4} = \alpha + \lambda_{t3}\beta + \varepsilon_{t4}$
5차년도: $Y_{t5} = \alpha + \lambda_{t4}\beta + \varepsilon_{t5}$
6차년도: $Y_{t6} = \alpha + \lambda_{t5}\beta + \varepsilon_{t6}$

반복 측정된 변수 Y 에 대하여 α 는 개인의 초기값을 나타내는 수치고, λt 시간단위의 기본 수치이며, β 는 변화율 즉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개인의 변화 정도이다. 그리고 εt 각 시점의 관찰 되지 않은 측정 오류를 나타낸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 모형을 설정하면 다음 [그림 1]과 같으며, 무변화, 선형변화, 이차곡선모형을 가설로 설정하였다.



[그림 1] 본 연구의 연구모형

3. 연구 변수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는 개인수준, 가정수준, 학교수준으로 구분하여 다음 <표 3>과 같다.

먼저 개인수준의 자기효능감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알고 있다, 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다,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을 무리 없이 결정한다, 내가 계획한 것을 잘 할 수 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의 6문항으로 신뢰도는 .765이다.

가정수준은 월평균 소득(가정의 월평균 가구소득 자연 log값)과 아버지의 학력(무학, 초등, 중등, 고등,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그리고 부모관계 및 지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부모관계 및 지원의 경우 남성부모와 여성부모에 대하여 응답한 내용을 합산하여 구성하였다. 문항 내용은 '나의 의견이나 감정을 믿고 존중해 준다, 나의 성적에 관심이 많다, 나를 위한 물질적 지원을 해 준다, 나와 대화를 자주한다, 나의 친구관계를 잘 안다, 나는 그 분과

갈등이 있다(역문항), 나는 그분을 존경한다'의 7문항으로 신뢰도는 .772이다.

학교수준은 학업성취와 학교 내 진로교육 활동 만족도로 구성하였는데, 학업성취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 대한 성취 수준 인식을 설정하였으며 신뢰도는 .732이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핵심 변수인 학교 내 진로교육은 학교에서 수행된 진로관련 활동 참여에 따른 만족도로 구성하였는데 '재량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진로관련 강연, 학교 및 학과 안내, 진로관련 검사, 직업체험, 진로상담'의 6문항이다. 신뢰도는 .840이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3학년, 고졸 1-2년 총 6년간의 진로계획 내 미래 직업에 대한 업무 내용 및 근무환경, 전망 및 보수에 대한 인식 수준을 종속 변수로 설정하였다.

〈표 3〉 수와 변수 특성

변 수		변 수 내 용
개인수준	자기효능감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알고 있다 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다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을 무리없이 결정한다 내가 계획한 것을 잘 할 수 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가정수준	월평균 소득	가정의 월평균 가구소득 자연 log값
	부학력	무학, 초등, 중등, 고등,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부모관계 및 지원	나의 의견이나 감정을 믿고 존중해 준다 나의 성적에 관심이 많다 나를 위한 물질적 지원을 해 준다 나와 대화를 자주한다 나의 친구관계를 잘 안다 나는 그 분과 갈등이 있다(역문항) 나는 그분을 존경한다
학교수준	학업성취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주요 5개 교과목의 학업성취 수준
	학교 진로교육	재량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만족도 진로관련 강연(전문가, 선배) 만족도 학교 및 학과 안내 만족도 진로관련 검사(적성·흥미검사) 만족도 직업체험 만족도 진로상담 만족도
종속변수		진로계획 중 미래 직업에 대한 업무 내용 및 근무환경, 전망 및 보수에 대한 인식

Ⅳ. 분석 결과 및 해석

1.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량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와 기술통계치는 다음 <표 4>와 같다. 1차년도에

서부터 6차년도까지의 미래직업 이해 수준의 평균을 통해 응답한 대상들의 해당 내용이 6년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15.0 프로그램을 통해 상관관계와 기술통계(<표 4>)가 분석되었으며, 잠재성장모형(LGM) 분석은 AMOS 7.0 프로그램이 활용되었다.

〈표 4〉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 및 기술통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SE1	1	.615(**)	.446(**)	.320(**)	.323(**)	.260(**)	.012	.084	.191(**)	.155(**)	.162(**)	.167(**)	.148(**)	.085	.148(**)	.186(**)	.109(**)	.211(**)	.181(**)	.178(**)	.190(**)	.102(*)	.174(**)	.251(**)	.174(**)	.364(**)
SE2		1	.465(**)	.298(**)	.271(**)	.232(**)	-.010	-.011	.147(**)	.104(**)	.132(**)	.151(**)	.154(**)	.022	.131(**)	.114(**)	.047(*)	.158(**)	.100(**)	.132(**)	.184(**)	.020	.172(**)	.119	.116(**)	.283(**)
SE3			1	.357(**)	.316(**)	.260(**)	.044	.022	.183(**)	.161(**)	.188(**)	.174(**)	.121(**)	.005	.174(**)	.171(**)	.116(**)	.184(**)	.146(**)	.187(**)	.145(**)	.148(**)	.198(**)	.111	.184(**)	.295(**)
SE4				1	.453(**)	.266(**)	-.052(*)	.001	.165(**)	.097(**)	.152(**)	.166(**)	.132(**)	.026	.099(**)	.108(**)	.110(**)	.164(**)	.143(**)	.134(**)	.146(**)	.134(**)	.063(*)	.135	.072	.227(**)
SE5					1	.345(**)	-.017	.010	.200(**)	.124(**)	.185(**)	.180(**)	.132(**)	.087(**)	.144(**)	.196(**)	.145(**)	.214(**)	.165(**)	.214(**)	.170(**)	.215(**)	.132(**)	.170(*)	.092(*)	.254(**)
SE6						1	.008	-.002	.208(**)	.134(**)	.171(**)	.187(**)	.145(**)	.032	.170(**)	.176(**)	.164(**)	.195(**)	.193(**)	.194(**)	.080	.071	.142(**)	-.010	.159(**)	.148(**)
FE							1	.348(**)	.020	.009	.014	.000	.006	.028	.018	-.003	-.018	.007	.001	.005	.015	.092(*)	.030	-.082	.008	-.036
IN								1	.007	-.006	.024	.010	-.024	-.013	.012	-.036	-.009	-.025	.007	-.026	.051	.097(*)	.067(*)	.095	.086(*)	-.029
PR1									1	.357(**)	.486(**)	.527(**)	.398(**)	.355(**)	.533(**)	.078(**)	.164(**)	.195(**)	.110(**)	.122(**)	.153(**)	.137(**)	.135(**)	.308(**)	.228(**)	.102(**)
PR2										1	.388(**)	.344(**)	.301(**)	.046(*)	.316(**)	.136(**)	.242(**)	.254(**)	.195(**)	.186(**)	.013	.063	.134(**)	.027	.077(*)	.131(**)
PR3											1	.392(**)	.280(**)	.149(**)	.363(**)	.127(**)	.134(**)	.198(**)	.114(**)	.156(**)	.143(**)	.121(**)	.128(**)	.267(**)	.070	.137(**)
PR4												1	.489(**)	.197(**)	.401(**)	.109(**)	.144(**)	.176(**)	.138(**)	.116(**)	.156(**)	.068	.095(**)	.265(**)	.123(**)	.113(**)
PR5													1	.160(**)	.341(**)	.007	.088	.122(**)	.085	.042	.230(**)	.143(**)	.146(**)	.245(**)	.152(**)	.117(**)
PR6														1	.257(**)	-.027	.012	.014	-.028	-.019	.071	.046	.055(*)	.208(*)	.072	-.008
PR7															1	.047	.110(**)	.161(**)	.088(**)	.091(**)	.195(**)	.131(**)	.137(**)	.300(**)	.140(**)	.102(**)
A1																1	.238(**)	.347(**)	.349(**)	.425(**)	.054	.005	.077(**)	.057	.071	.146(**)
A2																	1	.381(**)	.497(**)	.250(**)	-.006	.090	.006	.009	.080	.076(*)
A3																		1	.324(**)	.348(**)	.072	.113(*)	.142(**)	.078	.062	.140(**)
A4																			1	.418(**)	.031	.013	.074(**)	-.008	.134(**)	.113(**)
A5																				1	.102(*)	.010	.113(**)	.211(*)	.065	.187(**)
CE1																					1	.467(**)	.312(**)	.662(**)	.332(**)	.180(**)
CE2																						1	.205(**)	.478(**)	.438(**)	.127(*)
CE3																							1	.238(**)	.368(**)	.162(**)
CE4																								1	.529(**)	.152
CE5																									1	.130(**)
CP																										1
M	3.25	3.62	3.44	3.05	3.04	3.24	12.07	5.41	7.71	8.04	7.67	7.35	6.80	7.23	7.79	2.95	2.73	2.67	2.69	2.89	3.19	3.08	3.18	3.29	3.12	6.42[5]
SD	.92	.89	.85	.80	.80	.76	3.63	.52	1.50	1.50	1.43	1.60	1.63	1.87	1.67	.847	1.12	1.06	.955	1.03	.80	.67	.822	.95	.74	1.49
SK	-.05	-.44	-.13	.11	.13	.03	-.23	-.20	-.42	-.63	-.16	-.30	-.12	-.20	-.45-.01	.12	.22	.14	.15	-.33	-.03	-.15	-.36	-.10	.12	.26
KU	-.48	-.14	-.33	-.14	.05	.46	1.73	1.27	.26	.38	-.17	-.09	-.14	-.57	-.08	.25	-.73	-.50	-.26	-.46	.56	1.77	.29	.07	.09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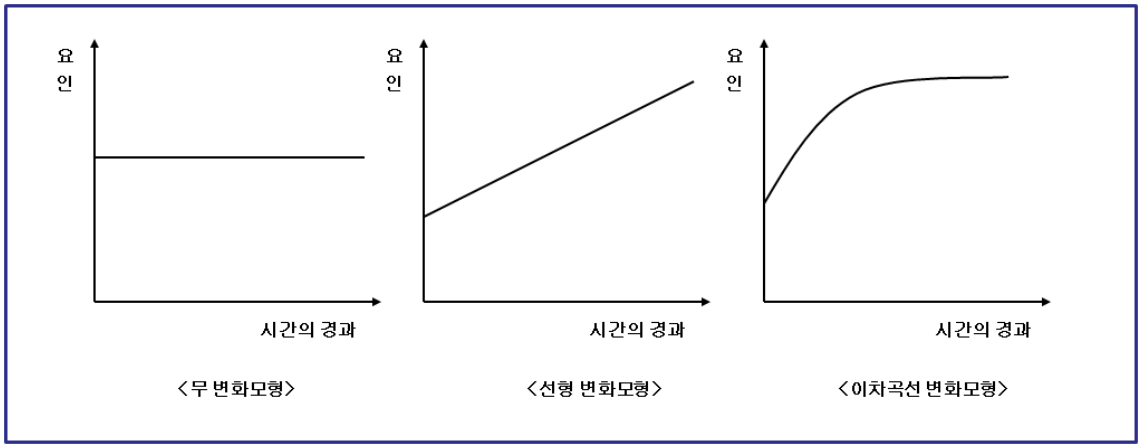
SE: 자기효능감, FE: 부학력, IN: 월평균소득 로그값, PR: 부모관계 및 지원, A: 학업성취, CE: 진로교육, CP: 미래직업 이해 수준(초기 중3), M: 평균, SD: 표준편차, SK: 왜도, KU: 첨도
*p<.05 **p<.01

2. 잠재성장모형 탐색

잠재성장모형을 탐색하기 위하여 미래직업이해 수준 1-6차년도 평균의 변화를 바탕으로 가설적으로 무 변화모형, 선형 변화모형, 이차곡선 변화모형의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였다.

[그림 2]를 바탕으로 적용된 각 잠재성장모형 분석결과를 살펴보면(<표 5> 참고), 먼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 무 변화모형은 χ^2 값이 315.342 이며, RMSEA 값이 범주를 벗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04년에서 2009년의 사이의 6년 동안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 무 변화모형은 원자료의 평균 변화를 설명하기에도 적합하지 않다.

5) 2004년 중3: 6.421, 2005년 고1: 6.673, 2006년 고2:6.677, 2007년 고3: 7.065, 2008년 고졸 1차: 7.186, 2009년 고졸 2차: 7.350



[그림 2] 잠재성장모형 비교

선형 변화모형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선형적인 변화를 가정한 것으로 χ^2 18.266, 표준적합지수 NFI(Normed Fit Index)와 상관적합지수 RFI(Relative Fit Index)는 각각 .999과 .999로 양호하며, RMSEA(Root Mee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값도 .007로서 적절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한편 연구대상자들의 미래직업이해 수준에 대한 인식이 6년간 곡선적인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가정한 이차곡선 변화모형은 χ^2 값이 15.729이며, NFI, RFI, CFI, RMSEA 모두 양호한 적합도를 보여주고 있다.

선형 변화모형과 이차곡선 변화모형이 모두 적합한 형태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원자료의 6년간의 미래직업이해 수준 평균의 패턴을 바탕으로 이차곡선 모형을 연구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표 5〉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지표

모형	χ2(df)	NFI	RFI	CFI	RMSEA
무 변화모형	315.342	.983	.981	.984	.084
선형 변화모형	18.266	.999	.999	1.000	.007
이차곡선 변화모형	15.729	.999	.998	1.000	.011

선택된 이차곡선 변화모형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초기치 평균은 5.423($p<.001$), 변량은 .142, 변화율의 평균과 변량도 각각 .190($p<.001$)과 -.065이었으며 이차곡선요인의 평균과 변량은 .000, -.005이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초기치와 변화율의 평균이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표 6〉 잠재성장모형 추정치

	항목	평균	표준오차	변량	초기치-변화율 상관	변화율-이차곡선 상관	초기치-이차곡선 상관
이차곡선 변화모형	초기치	5.423**	.039	.142	-.002	.020	-.025
	변화율	.190**	.037	-.065			
	이차곡선	.000	.007	-.005			

*p<.05 **p<.001

또한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이 -.002의 부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는 무의미하였다. 하지만 부적인 결과치를 조심스럽게 해석하여 본다면 나타나 1차년도의 미래직업이해 수준이 높을수록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직업이해의 증가 폭이 느리게 진행됨을 알 수 있다. 변화율-이차곡선과 초기치-이차곡선의 상관 모두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3. 학교 진로교육의 영향 분석

다음으로 미래직업이해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학교 진로교육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이차곡선 변화모형의 초기치, 변화율, 이차곡선 요인에 변수를 투입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해당 변수들의 경우,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청소년들의 초기치, 변화율, 이차곡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로서 투입된 자료는 시간의 연속성과 인과성을 고려하여 1차년도(2004년 중3) 자료를 중심으로 투입하여 예측되었다.

미래직업이해 수준 초기치에는 개인수준의 자기효능감, 학교수준의 학업성취와 학교 내 진로교육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변화율에는 자기효능감, 학업성취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차곡선에는 역시 개인수준의 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력을 주고 있었다.

〈표 7〉 예측변인을 포함하는 잠재성장모형 분석

요 인		초기치	변화율	이차곡선 요인
개인수준	자기효능감	1.911**	-1.453**	.229**
가정수준	월평균 소득	-.097	.071	-.008
	부학력	-.001	.004	-.001
	부모관계 및 지원	.870	.014	-.003
학교수준	학업성취	.190**	-.159*	.024
	학교 내 진로교육	.354**	-.190	.018

Fit Measures	χ^2(df)	NFI	RFI	CFI	RMSEA
	2341.758(424)	.984	.981	.987	.041

*p<.05 **p<.001 / 비표준화 계수임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의미부여와 건강한 이해수준에 따라 미래 직업에 대한 초기치 인식 수준이 상당부분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변화율과 가속도와 관련된 이차곡선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자기효능감을 어떻게 긍정적이고 자신의 삶의 대한 적극적 모습으로 형성시킬 것인가가 주요한 교육적 이슈로 대두된다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인성교육을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수준에서 학업성취의 경우 미래직업이해 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사회 내 사회적 이동과 성취를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로서 작용하고 있는 학업성취가 청소년들의 미래직업이해 수준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학업성취가 낮은 청소년들은 학업성취가 높은 청소년들보다 미래직업이해 수준이 낮았으며, 학업성취가 높은 청소년들은 그 반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성취 수준이 비단 대학입학과 관련된 영역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직업계획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교 진로교육의 경우 초기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재량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진로관련 강연(전문가, 선배), 학교 및 학과 안내, 진로관련 검사(적성・흥미검사), 직업체험, 진로상담과 같은 학교 진로교육 활동이 실제 청소년들과 참여자들의 미래직업이해 수준의 초기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재량활동을 통해 내실있는 진로교육, 진로관련 강연(전문가, 선배), 학교 및 학과 안내, 진로관련 검사(적성・흥미검사), 직업체험,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며, 효과적인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청소년들의 이후 진로 계획과 실제적인 직업적 영역에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학교 내 진로교육의 희망적인 결과로서 공교육의 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학교 내 진로교육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율과 이차곡선에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이는 진로교육의 효과성이 청소년들의 초기 시점에 유용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의 전국규모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진로성숙도의 주요 영역인 미래 직업이해 수준과 인식의 종단적 변화와 그러한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특별히 학교 진로교육의 효과를 탐색하여 일반학교에서의 향후 진로교육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변수의 종단적 변화를 추정하고, 그러한 변화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관련성을 분석해볼 수 있는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을 탐색하기 위하여 진로계획 내 미래직업이해 수준 1-6차년도 평균의 변화를

바탕으로 무 변화모형, 선형 변화모형, 이차곡선 변화모형의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였다. 먼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 무 변화모형은 χ2 값이 높고, 모형 적합도가 적절하지 못하여 연구모형으로서 선택되지 못하였다. 선형과 이차곡선변화 모형의 경우 NFI, RFI, CFI, RMSEA 모두 양호한 적합도를 보여주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원자료의 6년간의 미래직업이해 수준 평균의 패턴을 바탕으로 이차곡선 모형을 연구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선택된 이차곡선 변화모형의 경우 초기치의 평균과 변화율의 평균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나머지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인 학교 진로교육의 효과와 다양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이차곡선 변화모형의 초기치, 변화율, 이차곡선 요인에 변수를 투입하였다. 이때 초기치, 변화율, 이차곡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로서 투입된 자료는 시간의 연속성과 인과성을 고려하여 1차년도(2004년 중3) 자료를 중심으로 투입되었다. 그 결과 미래직업이해 수준 초기치에는 개인수준의 자기효능감, 학교수준의 학업성취와 학교 내 진로교육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변화율에는 자기효능감, 학업성취가 영향을 주고 있었다. 또한 이차곡선에도 개인수준의 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결정 수준의 영향요인으로 자기효능감, 학업성취가 주요 변인으로 나타난 2007년도 본 연구자들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지만, 당시 진로결정 수준에 있어 학교의 진로지도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사뭇 다르다. 즉,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있어서는 부모들이 미리 정해놓은 진로를 마지못해 따르는 경우가 많아 학교의 진로교육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청소년들이 장래 자신이 갖게 될 직업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는 학교의 진로교육이 도움이 됨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자연스럽게 개인수준의 자기효능감과 학교수준 변수들이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교 진로교육의 경우 재량활동을 통한 내실 있는 진로교육, 진로관련 강연(전문가, 선배), 학교 및 학과 안내, 진로관련 검사(적성・흥미검사), 직업체험,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이 매우 중요함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또한, 학교의 효과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이후 진로계획뿐만 아니라 직업 영역에서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학교 진로교육의 영향력과 가능성은 직업체험과 상담 및 정보 안내를 강조한 이상준(2011)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양한 수준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학교 진로교육의 영향과 효과를 미래직업이해 수준의 인식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 진로교육의 경우 학교와 함께 핵심적으로 가정 내에서도 이루어지는 영역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진로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명확하게 다루어주지 못한 아쉬움이 존재한다.

⁘ 참고문헌 ⁘

강현랑(2000). 진로지도를 위한 적성, 흥미 교과성적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교육과학기술부(2012). 청소년의 직업에 대한 인식을 넓히기 위한 체험위주 진로교육 강화. 보도자료.

권영옥(2001).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청소년기 체력의 성장모형 탐색.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경식・이현철(2007). 진로결정수준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등교육연구 55(3). 143-163.

김경진(2011). NIE를 활용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향상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길(1993). 진로교육의 장학방법과 역할. 문교행정, 문교부.

김희수(2007). 교과목으로서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 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연구. 진로교육연구, 20(2).

디지털타임즈(2012). 초중고 진로교육 680억원 투입…중학생 연1회 반드시 참여. 2012년 1월 11일자 기사. http://www.dt.co.kr/

머니투데이(2012). 중학생 직업체험 연1회 의무화…"진로교육 강화" 교과부, 진로교육 활성화 추진계획 발표. 2012년 1월 11일자 기사. http://www.mt.co.kr/

박완성(2006). 진로탐색행동과 역기능적 진로사고 및 관련변인과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19(3). 23-39.

박재홍・유연숙(2006). 교육서비스품질이 서비스만족과 진로탐색활동에 미치는 영향: 전문대학 비서 관련학과를 중심으로. 경영논총 24(2). 33-60.

이기봉(2003). 남・여 청소년의 체력발달 비교: 잠재성장모형의 적용.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기봉・박일혁(2001). 종단적 운동수행력의 변화 분석: 잠재성장모형의 이용. 한국체육학회지, 40(2), 885-897.

이상준(2011). 고등학생의 진로교육 참여결정요인과 그 효과성에 관한 연구: 대학 전공학과 선책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17(2). 385-408.

임언(2005). 다층모형(HLM)에 기초한 학교 진로교육 효과 분석.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하기봉(2001). 진로결정 과정의 학부모와 학생 문화 탐색.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육개발원(1990). 진로교육연구보고서.

Bollen & Curran(2006). *Latent curve models*. WILEY, John Wiley & Sons, Inc.

Maddy-Bernstein(2000). *Career development issues affecting secondary schools.* The Highlight Zone: Research@work, No.1.(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444 035).

Abstract

The effect of School Career Education on Perception of the Future Occupation

Kim, Kyung-Sik · Lee, Hyunchul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influencing career maturity(perception of future occupation) and its change in Korean youth by using a sample from KEEP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data.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erception of future occupation of Korean youth is gradually increased with quadratic curve. Also,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intercept and slope of social capital is not statically significant.

Second, analysis of Latent Growth Models shows that self esteem, academic achievement, and school career education are found to b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on perception of future occupation of Korean youth.

These findings show that perception of future occupation of Korean youth are the quadratic curve and influenced by self esteem, academic achievement, and school career education. It means that public/private schools have to encourage school career education program with quality in educational curriculum and to develop a strategy to can improve self esteem of students.

Key Words : future occupation, school career education, Latent Growth Models(LGM)